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7년 2월 3일(금)

... (음력 1월 6일) ...

Пятница

3 февраля 2017 г.

№ 4(116721)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1월 27일(금)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펼쳐진 음력설행사에서.

(이예식기자 촬영)

보건부 장관, 주립병원 전망 제시

지난 1일(수) 주보건부 장관 박 알렉세이는 사할린주립병원에서 본 병원 의사들과 만남을 갖고 병원의 전망을 의논했다.

병원 현황을 파악한 박 장관의 기본 입장은 시설의 현대화와 발전 속도의 촉진에 있음을 밝히고 현재 병원에 원활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에 그 원인들을 분석해 보았다.

병원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일부 장비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의료진들의 타성적 태도와 환자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병원 내 부서간 상호작용의 불일치, 새로운 의료기기들과 치료법이 정착되지 않은 등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런 결과로 현재 주립병원의 발전이 지체 되고, 불합리한 상황들이 계속 정체되어 있다고 박 장관은 말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이루는 것 중 하나가 주혈관센터로서 2009년에 개관된 이 센터는 처음엔 높은 수준을 보여주었지만 그동안 적극적 활성화가 되지 않는 데에 대해 박 장관은 유감을 표했다. 현재도 전문의들의 수준은 높지만 일반업무 조직면에서도 많이 뒤떨어진 면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심혈관 질환 지표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올해 주산기센터가 준공되면서 현재 병원 내에 있는 산부인과 등이 이곳으로 이주하게 되어 공간 부족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앞으로 일반외과 부문에서도 의료진의 구성과 구조도 확대할 예정이며 의료 전문인들의 처우개선 방침도 강화해갈 계획이라고 표명했다.

(사할린주보건부 홍보실 자료에서)

사할린주, 작년 공동주택 114동 준공

작년에 사할린주에서 공동주택 114동(11만8600평방미터)을 준공하여 2310세대가 입주했다.

1만3900평방미터의 주택들은 기존의 낡은 주택에 복구 프로그램 일환으로 공사한 것이고 나머지는 임대 아파트라고 외진 잘로즈니 주건설부 장관은 사할린주정부 회의에서 보고했다.

2016년에 사할린주에서는 총 32만7000평방미터의 주택이 운영되었다.

2012년부터 실시된 낡은 주택 복구프로그램으로 그사이 1만2111명이 새 집을 받았다.

새 임대아파트는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네웰스크, 아니와, 포로나이스크, 스미르노에 건설되었다.

올해 14분기에는 포로나이스크구역에서 임대 아파트 2동과 트롭스코예구역에서는 3동이 준공될 예정으로 올해 총 임대아파트 9동(347세대)이 운영될 전망이다.

잘로즈니 장관은 2016년에는 건설회사들이 730억 루블리의 비용으로 건축설계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작년에는 주내에 여러 농촌지역에서 소진료소들이 준공되었고 의료진을 위한 주택도 완공되었으며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는 유치원 2 개소(400석)가 완공되었다. 현재 주중앙도시 포베다(승리)광장에는 역사박물관 공사가 마무리 단계(완공 98%) 중이다.

회의를 주재한 웨라 세르비나 수상은 공동주택과 관련된 설비를 건설하는 데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했지만 학교, 클럽 등 지방자치체 사회적 대상에 대한 건설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건설 착수 전까지 준비기한을 단축시키고, 지출 비용도 절감하도록 지시했다.

단신

사할린, 2016년 연송어 어획량 11만2000톤

2016년에 사할린주에서 연송어 11만 2000톤을 어획했다고 2월 1일(수) 있는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수산청 사할린·쿠릴지역 관리국 알렉산드르 타라텐코 국장이 밝혔다.

이는 앞선 해보다 4천 톤 가량 증가한 양이다. 2015년에는 연송어 10만8000톤을 어획했는데 10만 톤 그 이상의 송어가 더이상 사할린주 수역으로 유입되지 않았다.

2016년에는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연어 2만톤이 적게 유입됐던 걸로 알려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버스 서비스센터 열려

유즈노사할린스크 지방자치기관 <트랜스포르트나야 콤파니아>에서 최신 장비를 갖춘 서비스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 벨로루시산 마즈 버스와 가스를 이용하는 카마즈 <마르크 폴로>를 일반공용버스를 수리할 것이다.

이 센터는 유즈노사할린스크의 버스만 아니라 주내에 다른 지역 버스들도 수리할 예정이다. 서비스센터 전문가들은 이미 연수를 받고 수료증을 받은 걸로 전해졌다.

현재 <트랜스포르트나야 콤파니아>는 새 버스 211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중 40대는 가스로 운행하고 있다. 이중 10대는 어린이들을 위해 운행, 나머지는 시내노선을 따라 운행하는 버스로 전해졌다.

검찰국, 노동자 임금체불 5300만 루블리

작년에 사할린주 검찰국은 다른 감시기관들과 함께 조사한 바 사할린 38개 기관에서 임금에 대한 체불이 1억8600만 루블린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 체무를 이행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니콜라이 라보브 사할린주 검찰국장이 전했다.

2016년에 임금체불 신고 건수는 작년보다 5 배 증가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금액은 5300만 루블리에 해당하는데 그중 90%는 부도난 회사들의 채무로 밝혀진 가운데 각 회사들의 직원들의 노동에 임금으로서 가치를 평가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쿵쿠르에 재능 학생 22명

사할린주를 대표

2월 1일 2 차 사할린주 청소년예술경기가 끝났다. 경쟁프로그램에는 135명이 참가했는데, 그중 72명은 음악 관련 전문, 63명은 미술 관련 전문을 대표했다.

이 경기는 자리 석권을 위한 경쟁이 아니라 쿵쿠르에 참가권을 얻기 위한 경기로 해마다 개최하는 이 경쟁프로그램은 전문예술인을 개발하고 영재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2016년 11월 내내 경기의 경쟁에 나선 학생들은 어떤 쿵쿠르에서 사할린주를 대표할 수 있을 지를 증명해야 했다.

이들 참가자들은 오하, 샤호쵸르스크, 유즈노사할린스크, 우글레고르스크, 코르사코브, 아니와 예술학교 학생들로서 솔로, 듀엣, 앙상블로 8개 부문(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댄스, 미술, 무용과 낭독)에서 발표했다.

이렇게 하여 제16회 청년텔레경기, <위와트, 페테르부르크>국제예술쿵쿠르, 제 6회 상트페테르부르크오픈현악기 청소년연주자 쿵쿠르를 비롯 러시아 주요 쿵쿠르에 재능 학생 22명이 사할린주를 대표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새고려신문

2017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7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인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5루블리 79코페이크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동포생활

음력설,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며

사할린주한인회가 해마다 개최하는 대규모 행사 중 하나는 음력설 행사다.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월 27일(금) 사할린주한인문화센터 강당에는 사할린 한인 70~80세의 어르신들 1세와 60세 정도의 2세 약 200여 명이 모였다.

이날 정유년을 맞아 사할린 주정부 행정실 이성철 부실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한국영사출장소 황명희 소장, 주유즈노사할린스크일본총영사관 히라노 류이찌 총영사, 사할린한국교육원 장원창 원장, 주정부·시행정부 관계자, 사할린·한국 사업가, 민족단체 대표 등이 음력설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다.

새해 인사를 올린 박순옥 주한인회 회장은 정유년을 맞이하여 이날 함께 자리한 분들의 가내에 만복과 따뜻함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새해는 시작을 의미하니 모든 것을 새로이 시작하여 새로운 도전에서 성공하기를 기원하는 인사를 했다.

사할린주정부 행정실 이성철 부실장은 이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의 축하의 말을 전하고 어르신들을 비롯해서 부모, 가족, 친지와 친구 모든 분께 건강과 가내의 안녕을 기원하며 수많은 민족이 살고 있는 사할린은 정말 특별한 곳이란 것을 강조하고 무엇보다도 건강을 기원했다.

황명희 주유즈노사할린스크출장소 소장은 "설날은 건강과 풍요를 기원하는 한민족 최대의 명절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가족과 이웃이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며 서로 덕담을 주고 받는 아름다운 전통"이란 것을 상기시키며 "이처럼 오늘 설날행사가 한민족 전래 미풍양속을 계승, 발전시키면서 동포사회 내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나

아가 사할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기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는 축하의 인사를 했다.

이날 <에트노스>학생들의 즐거운 춤과 <하늘>사물놀이팀의 신나는 풍물, 김춘경 씨의 독창, 우미하일과 이타치아나의 듀엣 노래 등이 명절 분위기를 한층 돋우었다.

특히 제9동양어문학교 학생들이 준비한

<하나부터 열까지>노래연출은 많은 웃음을 터뜨렸다.

세계 <재외동포와 함께 하는 KBS전국노래자랑> 서울 본선에서 인기상을 받은 폴리나 랍추크(11)는 이번에 <우리는 함께>라는 러시아 노래 불러 어르신들의 마음을 녹였다.

7년 만에 사할린을 잠깐 찾은 목진호 예술인도 사할린사람들과 함께 음력설을 보냈다. 그는 이날 동포들에게 <하늘>팀 제자들과 함께 흥겨운 풍물놀이를 보여주고, <어머님> 노래



를 선사했다. 공식적 공연은 이리나 마카렌코와 김광용 초대가수의 무대로 이어졌다. 이들의 노래에 흥겨워진 사람들은 춤판을 벌였다.

물론 음력설은 떡국 없이는 안 되는 명절이다. 이날 주한인회가 정성껏 차린 밥상에는 떡국이 빠질 수가 없었다. 떡국도 먹고 나이도 한 살 더 먹게 된 손님들은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을 함께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문화생활

사할린에서 무궁화를 피우도록

지난 27일(금) 사할린주향토박물관에서 사할린한인들에게 선사하는 <사할린땅에서의 무궁화 꽃>전람회가 열렸다. 이 전람회를 실현하도록 주향토박물관, 주미술박물관, 사할린주역사고문서보관소의 관심 속에 이들 소장품들로 조성되었다.



전람회는 사할린 한인 역사 19세기 중반부터 1990년대까지, '사할린 섬'책 속에 체홉의 짙막한 표현에서부터 90년대 영주귀국에 기쁨의 눈물까지 힘겨웠던 역사를 담고 있다. 전람회는 코너별로 역사, 교육과 문화, 전통과 풍습, 의상, 가구, 생활용품 등으로 나뉘어져 있다.

현재 사할린한인의 수는 전체 사할린인구에서 5% (약 2만5000명)이지만 19세기 말기 인구조사에 따르

면 한인수는 67명에 불과했었다.

한인들의 역사에는 비극적 순간들이 많았다.

19세기 말기-20세기 초기에 조국의 고달픈 삶을 피하기 위해 극동지역으로 건너온 조선사람들, 이들은

1937년에 스탈린의 명령으로 강제이주를 당하고, 가라후토 시대에는 동토로 강제동원된 한인들, 1945년 8월에 일본인들로부터 학살을 당한 한인들, 이후 약 반세기 동안 모국으로 귀국할 수 없는 우리 동포들...

이번 전람회 출품품들 중에는 옛 한인들의 주방용품을 비롯해서 향토박물관 직원들의 가족이 소장해온 재미있고도 희귀한 품목들도 꽤 많았다. 이날 전람회 개관식에서 주향토박물관 워토르 세글로브 부관장은 관람객들을 환영하며 이번 전람회를 통해 관람객들은 우리의 과거에 남겨진 것들을 보존하고 지키며 널리 알림으로서 명심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사할린 주민들과 사할린한국교육원 장원창 원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사할린한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되고 양국 간 문화교류가 확대되길 바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사할린땅에서의 무궁화>전람회로 향토박물관은 <박물관에서 한국문화의 날>행사들을 열었다. 전람회는 2월 27일까지 계속되며 한 달 동안 관람객들은 사할린한인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전통풍습에 대한 비디오를 보고, 민속전통놀이 등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취재: 이에식기자)

이모저모

제7회 <세계의 끝> 사할린영화제 8월 말 개막

제7회 사할린국제영화제 <크라이 스웨타 (세계의 끝)> 경쟁프로그램은 영화 12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사할린주문화문서보관부 홍보실이 전했다.

이에 대해 러시아영화인연맹 사무처장이자 사할린영화제 조직진행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세르게이 노워길로브가 올해 첫 회의에서 밝혔다. 현재 2017년 사할린국제영화제 <크라이 스웨타> 컨셉의 주요 방향이 설정되었다. 비경쟁프로그램에서는 어린이와 가족에 초점을 맞춘 영화들(장편 예술영화, 애니메이션, 교육적 애니메이션 등)에 큰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별도로 청각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며 비경쟁 프로그램 중에는 <페스트-히트>, <쇼트-히트>, 유명 감독들의 회고작, <키노아트. 러시아>, <온 가족을 위한 영화(6+)>, 아시아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영상 등도 상영할 계획이다.

작년과 같이 주최 측은 사할린 감독들의 영화를 상영하고 공연·전시회·영화인과의 만남·컨퍼런스·Q&A토론도 개최할 예정이며 청년과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제 조직위원회는 연구를 목적으로 주민들의 건설적인 의견과 요구, 희망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질문조사를 실시했다. 2017년 3월 1일까지 질문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에 따른 질문사항은 사할린국제영화축제 홈페이지 sakhalinfilmfestival.ru에 공시되어 있다.

올해 영화포럼은 8월 27일(러시아 영화 날)부터 9월 3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조직위원회 위원들은 이 제안에 동의하고 위의 기한들을 확정했다.

VII Сахалинский «Край света» стартует в конце августа

В конкурсную программу VII Сахали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кинофестиваля «Край света» планируется включить 12 кинокартин,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региона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и архивного дела.

Об этом заявил секретарь Союза кинематографистов России, сопредседатель оргкомитета Сергей Новожилов на первом в этом году заседании.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сформированы основные направления концепции «Края света» 2017 года. Во внеконкурсных программах большое внимание будет уделено фильмам, ориентированным на детскую и семейную аудиторию (игровые полнометражные картины, анимац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анимационные циклы и другие). Кроме того, одна из внеконкурсных будет ориентирована на зрителей с ограниченными возможностями здоровья по слуху.

Среди внеконкурсных программ зрителям будут подготовлены «Фест - хиты», «Short - хиты», Ретроспективы знаменитых режиссеров, «КиноАрт. Россия», «Кино для

всей семьи» (6+), Азиатской анимации, Документальные программы и другие.

Как и в прошлом году, организаторы планируют продолжить показ фильмов сахалинских режиссеров, проведение концертов, выставок, творческих встреч, конференций, дискуссий Q&A. Сохранится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часть для молодежи и подростков.

С целью изучения пожеланий, мнений и конструктивных идей от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области был организован опрос, он продолжится до 1 марта 2017 года. Перечень вопросов, по которым проводится опрос, опубликован на сайте кинофестиваля – sakhalinfilmfestival.ru.

В этом году кинофорум планируется провести в период с 27 августа (День российского кино) по 3 сентября. Члены оргкомитета поддержали это предложение и утвердили данные сроки.

사할린주 일반과학도서관 '러시아 과학 날'을 기념

2월 8일은 '러시아 과학 날'이다. 이날을 기념하여 전국에서는 다양한 과학계 행사가 개최된다. 사할린주유니버설과학도서관에서는 이 명절에 즈음하여 <과학으로의 한 걸음>이란 주제 아래 <나우즈노 네 스쿠츠노(과학은 지루한 것이 아니다!)>란 부제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행사는 러시아와 세계 과학적 성과의 대중화를 목적으로 연구적 탐구에 관심있는 사람들, 자신의 지적, 문화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사람들로 조성된 행사가 이루어진다.

(8면에 계속)

외국어 경시대회, 문제 맞추기, 노래와 댄스 콩쿠르, 운동게임으로 즐기는 동양언어축제

27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 제9동양어문학교에서 제2회 시동양언어축제가 개최되었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제9, 제22, 제30 중학교와 제1, 2, 3 김나지아,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돌린스크 제1중학교와 홀스크 만천학교 5-11학년 학생 170명이 이날 동양언어 실력을 발휘하고 동양문화와 예술을 과시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이날 학생들은 한국어와 일본어 경시대회에 참가하고 사할린국립대에서 준비한 질문에 대답했다. 현재 크웨스트(어드벤처 게임(게임의 한 장르)가 유행인 만큼 이번에 주최측은 <동방은 단순하지 않다>란 주제로 퀴즈 크웨스트를 펼쳤다.

<아시아 리듬> 음악 콩쿠르 참가자들은 동양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었고, 공예교실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의 전통 부채를 만들기도 했다.

이날 자신의 운동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된 <샤오린의 단계> 경기에 대해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아주 즐거웠다고 했다.

참가팀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외국어 학습 이점에 대한 전자 포스터를 축제날 전까지 만드는 거였다. 이에 제9동양어문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이날 축제는 공연으로 막을 내리는 가운데 다양한 콩쿠르에서 우승한 학교 팀들을 시상했다.

대상은 코르사코브 제2중학교 팀(지도 오점순 한국어교사)이 수여받았다.

축제 로고는 세 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한국, 일본, 중국을 상징하고 대표하는 동물들은 바로 호랑이(한국), 학(일본), 판다(중국)이



코르사코브팀



다. 이날 이 동물 역할을 맡은 학생들은 무대에 나서 왜 그 나라의 상징이 되는지를 설명해주며 각 나라들의 특징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동양언어축제 개최 및 발의자인 골라코와 마리나 제9동양어문학교 교장은 제1, 제2회 축제는 시차원에서 개최해왔는데 해마다 유즈노사할린스크학교 외에 많은 지방학교들이 참가하는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주차원에서 이 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9동양어문학교에서는 2학년부터 영어를 가르치고 있고 5학년부터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제2외국어로 한국어, 중국어, 일어를 가르치고 있다.

(배순신기자)
(이예식기자 촬영)

지방한인회 소식

지난 주말에 주내 거의 모든 지방한인회들이 음력설맞이행사를 개최했다. 한인회들은 주로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이 행사를 즐겁게 진행했다고 전해졌다.

본사 편집부에는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와 우글레고르스크 한인회 회장으로부터 설 명절 행사에 대한 글이 접수되었다.

<스카즈카>카페에서 즐겁게 놀았다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는 이번에도 역시 <스카즈카>카페에서 음력설을 맞이했다. 1월 28일 약 30명이 모였는데 다들 직접 음식을 준비하여 가득 명절 한 상을 차려놓았다.

이날 젊은이들이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 무대를 준비했다. 특히 이라와 나스자 처녀들의 춤이 흥에 겨웠다. 사람들은 노래를 한껏 즐기고 노래자랑도 하고 춤도 많이 추었다.

회장으로서 행사준비조직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 유경순 씨와 김수옥 씨에 감사인사를 하고 싶다.

크라스노고르스크한인회 회장 문종기 노래와 웃음 속에 설을 보내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는 음력설을 1월 28일 <차이카>레스토랑에서 기념했다. 날씨가 좋지 않아 크라스노폴리에촌 주민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1세들을 비롯 81명이 모여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한인회 활동가들은 맛있는 한식 요리를 장만



했고 우글레고르스크예수교장교회 교회 교인들은 노래들을 선사했다.

자리에 모인 참가자들은 즐거워하며 만족해했다.

초대된 손님 중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젊은이들도 있었다.

행사는 농담, 웃음 속에서 진행되었다.

신문지상을 통해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관리위 위원들에게 감사인사를 올리고 싶다. 그리고 모든 독자 분들에게 건강과 행운, 성공을 기원합니다.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회장 강복수
(사진: 우글레고르스크한인회 제공)

사.할.린.

얼어붙은 섬에 뿌리내린 한인의 역사와 삶의 기록

저자 최상구

(전호의 계속)

그 후 1990년에 한소 수교가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보다 자유로운 왕래가 보장되자, 한국 정부도 「사할린 교포 영주귀국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하는 등 영주귀국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정부가 정한 영주귀국의 조건은 너무나 까다로웠다. 한국 내 친족이 생존해 있어야 하고, 그것도 사할린 한인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경제력 있는 친족이 있어야 한다고 못을 박아놓은 것이다. 더구나 귀국 대상자를 사할린 거주 징용 1세 및 1927년생 독신자로 제한하는가 하면, 소련 본토 거주자에게는 과거 사할린에 강제징용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별도의 자료마저 요구했다.

이에 <사할린주 한인협회>와 <이산가족회>는 한국에 연고가 없는 동포들도 귀환할 수 있게 해달라 건의했고, 광림교회에서 경영하는 <사랑의집>에서 이를 수용하여 1992년에 전세기 편으로 독신자 77명, 1993년에 고령의 무연고자 42명이 춘천에 있는 <사랑의집>으로 영주귀국하였다.

한편, 1992년 한국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함께 사할린 한인 문제의 해결을 일본 정부에 공식 요구하기로 하고 <피해배상을 위한 특별대책반>을 구성했다. 또한 무국적 사할린 한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러시아 연방 측에 협조를 구하는 방안과, 무연고 동포들이 귀국 후 생활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드디어 사할린 한인의 문제를 정식 외교사안으로 다루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비非자민당 연립정권이 출범했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그 당시 호소카와 수상은 취임 연설을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은 침략전쟁이며 잘못된 전쟁이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 과거 역사를 반성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분명한 매듭을 짓고 평화와 국제 협조를 위해 책임을 다해 나갈 생각”이라고 언급함으로써 과거 청산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의원간담회>의 이가라시 사무국장과 하토야마 유키오 사무국차장 등 과거사를 성찰하고 해결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을 내각에 기용하기도 했다.

한일 양국의 이러한 변화는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져, 1993년 한일 외무회담에서 양국은 사할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했고, 실무협의회를 통하여 양국 공동으로 사할린 거주 한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귀국 대상자의 범위와 기준을 마련하고 귀국에 필요한 예산도 논의하기로 했다. 그리고 그 해 11월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호소카와 수상은 다시 한 번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뜻을 밝히고, 그 일환으로 사할린 한인의 영주귀국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원책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영주귀국 대상 선정,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1994년, 한국과 일본은 합의한 대로 양국의 공동조사단을 사할린에 파견했다. 일본 측에서 외무성 북동아시아과와 일본적십자사가 참여하고, 한국 측에서 국무총리실과 외무부, 보건사회부, 대사관, 대한적십자사가 참여한 이 공동조사단은, <사할린주 한인노인협회> 등을 통해 영주귀국 희망자를 파악하고 사할린 잔류 한인들의 생활 실태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는 데 주력했다. 아울러 사할린 주정부와 적십자사와의 협조 방안도 협의했다.

이후 8월에 열린 5차 한일 실무협의회를 통해 양국은 사할린에 잔류한 한인 중 한국으로 귀환하길 희망하는 사람 전원을 대상으로 귀국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영주귀국자를 위해 필요한 주택과 요양시설을 마련한다는 원칙 아래, 부지는 한국 정부가 마련하고 건설 비용과 정착지원금은 일본 정부가 제공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필요한 경비를 곧바로 1995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나아가 이가라시 관방장관은 사할린 잔류를 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도 개인 보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이 이처럼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자 1994년 5월 <사할린주 한인노인협회>는 요구사항을 작성해 일본 외무성에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945년까지 출생한 자들을 1세로, 이후 출생자들을 2세로 취급해 보상할 것

■ 한국으로의 영주귀국은 연령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1938년 이전 출생자들을 우선적으로 귀국시키되 희망하는 가족과 동반 귀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마련할 것

■ 거주지는 본인의 희망지에 주택을 제공할 것

■ 1세대에게는 사망할 때까지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급할 것

(계속)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лонка историка

ИСТОРИЯ КОРЕИ



Самой важной реформой вана Седжона считается реформа письменности. Сейчас, в современном корейском обществе, этой реформе придается огромное значение, корейцы очень ею гордятся, а памятник Седжону на главной площади Сеула украшен характерным орнаментом из корейских букв. Почему же этому придается такое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Каждое государство со времен своего появления инициирует создание письменности.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 — именно государству необходимо вести учет количества населения, сбор налогов, запись законодательных актов, вести переписку между чиновниками и с други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фиксировать товарно-денежные отношения. И хотя в истории есть примеры государств, которые не изобрели письменность (например, династия Ся в Китае в конце II тыс. до н.э.), но долго такие государства не могли существовать, а развития достигали не очень высокого.

Значение письменности невозможно приуменьшить. Недаром историческая наука делит всю историю человечества на два периода — доисторический и исторический, водоразделом которых установлено именно изобретение письменности. Только печатное слово позволило узнать о жизни людей много больше, чем дает нам археология. И исключений из этого правила нет.

Между тем, известно, что ван Седжон и его деятельность в области письменности относится только к XIV в., тогда как государство у корейцев появи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раньше. Как же так произошло, может спросить любой читатель.

Я об этом, конечно, уже писала. Особенностью развит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сти в Корее (и практически всех государств Север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была большая зависимость и ориентированность на близлежащую великую цивилизацию — Китай. Корейцы заимствовали у китайцев очень многое — основ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труктуры, обряды, религию, конфуцианскую этику. Это случилось и с письменностью.

Особенностью придуманной более 3 тыс. лет назад китайцами системы иероглифического письма были его знаковые символы. Алфавитная письменность,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ая в Европе, передавала на бумаге звуки речи и даже наличие общей системы (их на самом деле было две — латиница и кириллица) не особо помогала в понимании слов.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онимать текст необходимо было знать язык, на котором был написан текст. Китайская же письменность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по другим правилам.

Технически иероглиф представляет собой картинку, несущую смысловое значение. Например, иероглифы 木 (дерево), 水 (вода), 國 (государство) — это картинки, значение которых поймет любой образованный человек, и при этом совершенно неважно, как именно он их прочитает — по-китайски *му, шуй, гуи* или по-корейски *мок, су, кук* или по-японски *моку, суй, коку*. Таким образом, корейцы и другие соседствующие с китайцами народы, просто взяли иероглифическую систему (которая и называлась в Китае *вэньян* — письменный язык) и приспособили ее под нужды собственных языков. Такая система существенно облегчала даж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контакты — совсем не обязательно было учить иностранные языки, чтобы понимать иностранца — достаточно было просто взять бумагу и кисть. В Азии даже такое понятие было — разговор кистей.

(Продолжение следует)

Юлия Дин,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ГИАСО

В областном 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ткрыли выставку, посвященную сахалинским корейцам

"Цветы мугунхва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продолжают цикл культур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посвященных 70-летию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были привлечены не только свои фонды, но и экспонаты областного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музея, документы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исторического архи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ыставочный зал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есьма невелик, ввиду чего (а может быть, благодаря чему) организаторам удалось соблюсти лаконизм в изложении очень емкой темы —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ричем от первых дней (середина XIX века) до нынешних, от краткой фразы Чехова в книге "Остров Сахалин" ("у Семенова работают манзы, корейцы и русские") до радостных слез репатриации в 90-х. В экспозиции выделены несколько блоков: история, образование и культура, обычаи, одежда, мебель, бытовая утварь.

Открывая выставку,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Виктор Щеглов сказал:

— На Сахалине живу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олее 100 национальностей, и все мы очень разные. Выставка "Цветы мугунхва на сахалинской земле" показывает культурное наследие не очень большой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но очень яркой и заметной части нашего населения. Надеюсь, она привлечет внимание сахалинцев внутренним посылом — хранить, беречь и популяризировать то, что оставило нам прошлое.

В демографическом спектре региона на корейцев приходится 5 процентов (тогда как в переписи конца XIX века корейцев на острове насчитывалось 67 человек), в совместной с Россией истории — полтора века. На российский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корейцы переселялись в поисках лучшей доли, и их история полна истинно драматических моментов — тяжелый труд на шахтах, высылка в Среднюю Азию в 1937 году, японские репрессии в августе 1945-го, воссоединение раз-

ленных семей. Знаменуя специфику судьбы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корни — корейские, ветви — российские), современный южнокорейский художник-каллиграф Ю Джон Тхэк обратился к "сахалинским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ам" с призывом на свитке "сохранять любовь к стране, к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В отличие от художественных музеев здесь уникальность произрастает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из жизни.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лет сделали ценными экспонатами обыденные вещи, которых касались руки предков, в большинстве своем "пришедшие" прямо из домов (из кухни или кладовой). Причем в обиходе после 40 лет периода Карафутто наряду с корейскими осталось много японских вещей. У каждой из ни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среднего возраста впадают в воспоминания личного свойства, что вот точно такой же чудный японский шкафчик когда-то украшал бабушкин дом, а фарфоровым мискам, прошедшим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поколений, сносу нет. Корейская кухня, наверно, оттого вкусная, что чудовищно трудоемкая — по крайней мере в прежние времена. Об этом напомним кустарная жаржавелая машинка тугши тиль, через которую десятки раз приходилось прогонять полосу теста, чтобы изготовить лапшу, или вырезанная из цельного дерева ступа для изготовления блюда токк. А предметами мебели, как правило, музей обзаводился часто после того, как сахалинцы начинали капремонт, и громоздкое наследие прошлого уже не вписывалось в интерьер. Шикарный шкаф-секретер с кучей ящичков и хитроумным тайником заполучили в Корсакове, хотя, как говорят, японский покупатель обещал немалые деньги за этот практически антиквариат.

У выставки "домашний" характер и потому, что многие работники музея внесли лепту в проект из семейных закров. Со старых фотографий глядит переселенка из Кореи Ли Дар Лим — бабушка заведующей сектором передвижных выставок музея Татьяны Чен, кото-



рая неплохо училась в японской школе, о че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похвальный лист и учебный табель. В другой витрине — своеобразный "кабинет ученого" — тушечница и зажим для бумаг принадлежали деду специалиста отдела истории СОКМ Виталию Тяну. "Крестьянский интеллигент", как его назвал внук, занимался каллиграфией. Работница гардероба Ли Чан Сун одолжила для выставки целую коллекцию кухонной утвари, которой пользовалась для готовки ее бабушка. Что ни говори, а лучше всего история прочувствуется в материальном выражении... В идеале истории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можно было бы посвятить и отдельную постоянную экспозицию, но, как всегда, в музеях "мест нет". А потому "Цветы мугунхва...", кропотливо "взращенные" в музее по случаю юбилея многонациональной области, достойны признательности.

Выставка начинается цикл мероприятий "Дни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в музее" и открыта до 27 февраля. В течение месяца гостям областного краеведческого музея будут предложены экскурсии в корейскую историю и этнографию, видеофильмы, посвященные корейским традициям, обычаям и праздникам, лекции и игры.

Марина Ильина (ИА «Сахком») Фото: Ли Е Сик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экспорт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из РК вырос почти в три раза

За последние десять лет экспорт южнокорейской лапши быстрого приготовления рамен увеличился в три раза. Одновременно расширилась география поставок. Если первоначально они осуществлялись в Китай и другие страны Азии, то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растут поставки в США, страны Ближнего Востока и Европы. В 2016 году экспорт рамен составил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290,4 млн долларов, увеличившись на 32,7%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 годом, сообщили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продовольствия, сельского и лесного хозяйства. Промысловый показатель почти втрое превысил объем экспорта рамен в 2006 году, составивший 102,6 млн долларов.

(KBS Wo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7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1 месяц - 75 руб. 79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хеньян: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вызовут катастрофу

Если в марте состоится южнокорейско-американские совместные военные учения, то это приведёт к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м результатам. Об этом заяв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по мирному объединению родины. Заявление прозвучало накануне встречи глав оборонных ведомств РК и США, которая проводится впервые после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Дональда Трампа.

В заявлени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омитета говорится также, что стратегический статус состоит в поступательном укреплении военной мощи, чтобы им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нанести упреждающий удар с опорой на ядерные вооружения. В заявлении отмечается, что Сеул «слепо» проводит проамериканский курс и не в состоянии правильно оценить быстро меняющуюся ситуацию в регионе». США остаются принципиальным врагом корейской нации, и если Сеул «намерен следовать по пути конфронтации», то на него ляжет вся ответственность за «возможные катастрофические последствия такого курса»,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ООН выделит 6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СК

В первой половине этого года ООН выделит 6 млн долларов международ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работающим в СК.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31 января радиостанция «Голос Америки». Эта сумма на 25% меньше, чем за тот же период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Центральном фонде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чрезвычайные ситуации сообщили, что финансовая помощь Северу предоставляется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товаров гуманитарного назначения, обеспечение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Всего около 100 млн долларов будет выделено девяти странам, испытывающим острую нехватку средств на гуманитарные нужды. Среди них СК, Камерун, Ливия, Мадагаскар, Мали, Нигер, Нигерия, Сомали, Уганда.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развивают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Москва и Пхеньян договорились о подготовке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пециалистов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в российских отраслевых вузах.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а 31 января радиостанция «Свободная Азия».

Сообщается, что перспективы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этой области обсудила росси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побывавшая с визитом в СК в период с 27 по 30 января. Возглавлял делегацию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транспорта России Игорь Мицук.

Стороны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продлен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вопросах обучения студентов Пхеньянско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институт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путей сообщений (ДВГУПС) в Хабаровске.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там обучается 23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тудента. Стороны также обсудили проект создания транспортного коридора, соединяющего Транскорейскую железную дорогу с Транссибирской магистралью.

В мэрии Сеула пройдёт ярмарка вакансий

С 6 по 10 февраля в мэрии Сеула состоится ярмарка вакансий для молодёжи New Deal-2017. По сообщению мэрии, в ходе данного мероприятия планируется предостави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6.600 рабочих мест в областях экономики, культуры,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экологии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образования и новаторства. По решению мэрии Сеула, получившим работу на ярмарках вакансий стабильная занятость должна быть обеспечена как минимум в течение 23 месяцев, а максимальная месячная зарплата должна составить 1 млн 710 тыс. вон или 1.484 доллара. 9-10 февраля будут проводиться презентации по найму, организованные предприятиями-участниками ярмарки, где посетители смогут получить консультации.

В городе И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ялась высадка рисовой рассады

В среду в городе Ичхоне провинции Кёнгидо состоялась первая с начала года высадка рисовой рассады. Город Ичхон известен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произрастания качественного риса. Рис высажен в теплицах общей площадью 892 кв.м, для обогрева которых используется тепло, выделяемое городским мусоросжигательным заводом. В мероприятии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150 человек, в том числе, мэр Ичхона Чо Бён Дон. Урожай планируется собрать в мае.

(RKI)

Лучшие знатоки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ы в Корсакове

27 января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по лунному календарю на базе школы №9 с углубленным изучением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и культуры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прошел муниципальный фестиваль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170 учащихся 5-11-х классов из девяти школ и трех гимназий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а также Анивы, Корсакова, Долинска и Холмска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зна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а также эрудицию в области восточной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Ребята участвовали в олимпиаде по японскому и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ам. Они отвечали на вопросы, специально разработанные кафедрой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ниверситета.

Непрост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юных интеллектуалов оказалась квест-викторина «Восток – дело тонкое».

В музы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В ритме Азии» участники фестиваля исполняли песни на корейском, китайском и японском языках, а также восточные танцы. А ребята, участвующие в творческих мастерских представ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национальные веера.

Веселые старты «Ступени Шаолиня» позволили оценить физическую закалку ребят. Кроме этого, каждая команда представила на конкурс домашних заданий – постер о пользе изучения иностранных языков, который был выполнен в электронном варианте.

Надо сказать, что у фестиваля,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лся второй раз, появился свой логотип, на котором изображены трое животных, символизирующих три восточных государства: тигр (Корея), журавль (Япония), панда (Китай).

Узнать о символах этих стран ребята смогли узнать на финальном концерте фестиваля. Здесь же можно было увидеть выступление победителей в номинациях "песня" и "танец".

Победителем в общем зачете была признана команда школы №2 из Корсакова, которой достался Гран-при фестиваля. Всем участникам вручили дипломы и сертификаты.

Хочется отметить большую подготовительную работу организаторов мероприятия - инициаторов проведения Фестиваля восточных языков - учителей школы № 9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Виктория Бя.
Фото: Ли Е Сик



Сошел с дистанции

Пан Ги Мун отказался от борьбы за пост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Завершивший недавно работу на посту генсека ООН Пан Ги Мун, который до сих пор считался одним из глав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должность следующего президента Южной Кореи, внезапно отказался от участия в выборах. Об этом он лично заявил сегодня в ходе неожиданно созванной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Напомним, что Пан Ги Мун вернулся в Южную Корею три недели назад. Хотя до сих пор он сам формально не признавался в этом, но Пан после возвращения на родину сразу же начал предвыборную кампанию, проведя целую серию встреч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личных политических сил и осуществив визиты в регионы Кореи. Согласно опросам, Пан Ги Мун занима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возможных претендентов на пост лидера страны, уступая лишь Мун Чжэ Ину - политику из оппозиционного лагеря. Вместе с тем, в адрес Пана в СМИ были выдвинуты обвинения в коррупции, а его брат и племянник задержаны в США по обвинениям во взяточничестве.

Пан Ги Мун сумел удивить всех. Ему предлагали возглавить самые разные политические силы, альянсы Южной Кореи, рейтинг его был как минимум конкурентоспособным, сам он стал вести переговоры с разными политиками, но вдруг бывший генсек опрокинул все прогнозы. Сегодня в здании Национальной ассамблеи (парламента)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о созыве Паном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и, которая не планировалась до этого. Все ожидали, что Пан Ги Мун наконец-то официально заявит о намерении участвовать в выборах президента, но все произошло с точностью до наоборот.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он сказал, что за последние дни он "провел встречи с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различных слоев корейского общества, выслушал мнение народа", понял, что "люди хотят смены политической элиты". Однако затем он сказал следующее: "Я отказываются от своей простой цели, которая заключалась в единении нации и смене политики". Пан Ги Мун принес извинения тем, кто его поддержал и верил в него, подчеркнув, что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исключительно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сегодня утром". Таким образом, экс-генсек ООН отказался от предвыборной борьбы. Хотя формально сроки выборов нового президента Кореи еще не определены, но большинство специалистов уверены, что Конституционный суд поддержит отстранение президента Пак Кын Хе от власти и назначит на конец апреля-начало мая досрочные выборы.

Бывший генсек ООН одновременно пожаловался на "фальшивые новости, которые нанесли большую травму ему и семье".

Новость вызвала большое замешательство в политических кругах Южной Кореи, так как ожидалось, что Пан Ги Мун как минимум "еще поборется". Возможно, что на решение экс-генсека ООН повлияли опрос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мнения, которые показывали, что его главный соперник Мун Чжэ Ин неуклонно увеличивает разрыв. Сегодня были обнародованы очередные результаты соцопроса. Согласно им, в случае выборов с участием только Мун Чжэ Ина и Пан Ги Муна с перевесом в более чем в два раза победил бы Мун. За него выразили готовность проголосовать 52,6 процента корейцев, а за экс-генсека лишь 25,6 процента.

Кроме того, несмотря на все усилия и заявления, вокруг Пан Ги Муна продолжали возникать слухи о коррупции. Сначала СМИ его обвинили в получении 230 тысяч долларов в 2005 и 2007 годах, что Пан категорически опроверг. Однако затем прокуратура США предъявила официальные обвинения во взяточничестве брату и племяннику политика. Стало также известно, что племянник Пан Ги Муна разыскивается властями Южной Кореи по обвинениям в уклонении от службы в армии.

Так или иначе выход Пан Ги Муна из президентской гонки играет на руку Мун Чжэ Ину, статус которого как главного фаворита ожидающихся выборов еще более укрепился. Главные его противники в лице различ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консервативного лагеря теперь вынуждены будут искать замену Пан Ги Муну.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им станет нынешний премьер-министр Хван Гё Ан, который сейчас исполняет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зидента страны взамен отстраненной Пак Кын Х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Сеул)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кажут дополнительную поддержку предприятиям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 гостиничной индустрии

Такое решение накану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ри областном правительстве. За помощью к властям обратилис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бизнеса. Поддержка, по их мнению, необходима для развития в области въездного туризма и сохранения гостиничного фонда, который должен быть приведен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нового законодательства, или, в обратном случае, выведен за рамки эт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Уже сегодня гостиничный бизнес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ажная доходная составляющая экономики. Ежегодно предприятиями отрасли оказывается услуг на 2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В регионе насчитывается около 100 объектов для размещения гостей с общим фондом 2334 номера единовременной вместимостью 4159 мест. Всего в данной сфере занято около 1500 человек.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отрасль ждут реформы. По всей стране, включая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будет проводиться так называемая классификация объектов туристической индустрии с обязательным присвоением им «звезд». Чтобы успешно ее пройти гостиницам необходимо будет привести в соответствие с требованиями категории, на которую они претендуют, уровень оснащенности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ым программным обеспечением. Во многих случаях потребуются проведение ремонта или реконструкции помещений. Установлены и сроки.

Крупные гостиницы и другие объекты для размещения туристов с фондом от 50 номеров должны будут пройти классификацию до 1 января 2018 года, на год позже – организации с фондом от 15 номеров, в срок до 1 января 2020 года - мини-гостиницы, имеющие не более 15 номеров.

- Все это повлечет за собой большие финансовые затраты для гостиниц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Согласно данным нашего мониторинга ряд из них не обладает для этого достаточным объемом собственных средств, предприятия, по сути, окажутся под угрозой закрытия, - выразила обеспокоенность Елена Реутская, член координационного совета при министерстве торговли и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области по выработке и реализации гос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гостиничного бизнеса.

От имени руководства предприятий отрасли она обратилась к участникам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с предложением о выделении на указанные цели субсидий. Предложение получило поддержку,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будут определены механизм и размеры оказания такой помощи.

- Надеемся, что механизм субсидирования заработает, и гостиницы пройдут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классификацию, будут сохранены предприятия и рабочие места, - отметила Реутская. – Рассчитываем, что по итогам проведенной классификации в регионе повысится качество оказываемых гостиничных услуг. Также определим, какого сегмента гостеприимства пока не хватает на нашем рынке, чтобы рекомендовать бизнесу свободные ниши в этой отрасли. Мы готовы к совместной работе, учитывая, что создание современной индустрии туризма – одно из основ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нов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политики, реализуемой в регионе.

В ходе заседания участники Совета п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также одобрили и предложения, которые помогут привлечь в регион больше туристов. Речь идет о тех гостях, которые пользуются услугами местных туркомпаний. Данным организациям, продающим туры в регион, решено компенсировать часть расходов на приобретение авиабилетов для приезжих, сделав их более доступными. Подобным образом предлагается добиться и снижения стоимости перелетов для туристов на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чались зимние Дни здоровья

Их цель – вовлечь в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как можно больше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Каждую субботу в течение всего холодного сезона жители региона смогут на бесплатной основе воспользоваться инвентарем для лыжных прогулок. Выдавать снаряжение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Доступные лыжи» будут как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так и в районах.

Открытие Дней здоровья состоялось 28 янва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а запасном поле стадиона «Спартак». Здесь собралось более 100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отдыха, которы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массовом лыжном забеге. Для них были организованы пункты обогрева и бесплатного питания – всех желающих угощали солдатской кашей и горячим чаем из сахалинских ягод.

Перед стартом инструкторы подробно разъяснили условия соревнований: мужчинам была предложена дистанция 3 километра, женщинам – на 1000 метров меньше. Для детей и людей старшего возраста, которых также привлек забег, длина трассы строго не устанавливалась.

Начало гонке было положено после основательной разминки и зарядки, обязательной для всех. После этого лыжники стартовали единой группой и ушли на дистанцию. Уже через считанные минуты судьи встречали на финише победителей.

У мужчин первым финишную черту пересек губернатор. Для Олега Кожемяко участие в подобных соревнованиях уже стало привычным.

- Мы видим, что число любителей активного зимнего отдыха на Сахалине неуклонно растет. И стараемся последовательно создав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тех, кому по душе занятия спортом. Важно, что необходимая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созд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но и в районах. Только за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открылись горнолыжные подъемники в Невельском, Холмском и Томаринском районах. А в селе Горнозаводск начала работать новая лыжная база.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импульс развитию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в регионе должны придать первые в истории нашей страны зимни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портивные игры «Дети Азии». Сегодня Сахалин является наиболее вероятным претендентом на их проведение, - сказал глава области.

- Начало новой спортивной традиции - по проведению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ней здоровья - было положено в прошлом году. Сегодня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яах организован бесплатный прокат лыж по субботам. Вдобавок к этому в районах еженедельно проводятся массовые спортив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ак

Южносахалинцам на бесплатной основе предоставляются более 1000 комплектов лыжного инвентаря, добавил он.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потребности горожан в этом виде спортивного снаряжения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ены. В ближайших планах профильного министерства – строить новые объекты для занятий зимними видами спорта в Макаровском,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м и Холмском районах.

Победителей лыжных соревнований наградили дипломами и кубками. Почетный приз – «За волю к победе» был вручен иностранному участнику гонки, генеральному консулу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Рюити Хирано.

Свинокомплекс в селе Таранай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в этом году выйдет на проектную мощность

Сейчас активно возводится его вторая очередь - на 50 тысяч голов. Ввод в работу новых помещений для откорма позволит предприятию выпускать до 5 тысяч тонн свинины ежегодно - примерно в 5 раз больше нынешних объемов.

По расчетам, этого хватит, чтобы полностью обеспечить потребности сахалинцев и курильчан в данном виде продукции. Такими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ми планами с губернатором Олегом Кожемяко поделилось руководство АО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Эта компания реализует крупный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и стала одним из резидентов территории опережающего развития «Южная».

Напомним, сегодня успешно функционирует первая очередь свинокомплекса на 12 тысяч голов. На рынок области налажены поставки свежей продукции - около 110 тонн ежемесячно.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графиком сейчас возводятся и объекты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рассказал главе област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Алексей Пахомов.

- Введены здания ожидания, хрячника, карантина, осеменения, опороса, сооружения энергетики и водоподготовки, тепловой узел. Практически готовы 5 из 11 зданий для откорма: в феврале там начнется установка внутренних сэндвич-панелей и оборудования. Все необходимые материалы на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е есть,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 в апреле - рассчитываем начать «заселение» второй очереди свинокомплекса, - сообщил Алексей Пахомов.

По его словам, компания намерена организов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животновод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и мясопереработку. Сейчас идет проектирование нов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которое будет включать не только перерабатывающие линии, но и морозильные установки. Также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растущего поголовья кормами в ближайшей перспективе предусмотрен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тдельного комбикормового завода.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ручил поддержать это начинание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Кроме того, в планах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на свинокомплексе мощности системы водоочистки - с 30 до 170 кубометров в сутки. Это позволит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нейтрализовать вредные стоки.

- Сегодня компания «Мерси Агро Сахалин» в полном объеме выполняет взятые на себя обязательства по развитию свинокомплекса. Есть уверенность в том, чт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объектов его второй очереди будет завершено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при этом возможности предприятия существенно возрастут. Исходим из того, что первая продукция, полученная на нов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мощностях, начнет поступать на сахалинский рынок уже в ноябр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и в дальнейшем ее объемы будут наращиваться, - подвел итоги посещения предприятия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ели учебно-мобилизационный сбор

Цель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мероприятия – подвести итоги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прошлого

года и поставить задачи, которые предстоит решить в наступившем. В нем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около 70 человек - руководители региональных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бращаясь к участникам сбора,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дчеркнул, что - мобилизационная работа - это крайне актуальное направление,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значимый показатель эффективности деятельности органов власти. Он напомнил, что в 2014 году в ходе проверк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показал невысокие результаты по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подготовке. Сейчас работа по эт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усилена.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рамках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обороны был проведен ряд масштабных учебно-практических мероприятий. Хорошую оценку ее организации дал в октябре в ходе рабочего визита в регион главнокомандующий Сухопутными войсками, генерал-полковник Олег Салюков.

Губернатор отметил, что региональные власти наладили тесн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командованием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и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представители министерства обороны России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вают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по повышению качества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подготовки области. Недостатки, указанные ранее, были устранены.

В первый день участники сбора проанализировали результаты работы по указанному направлению, подвели итоги призыва граждан на военную службу. Как выяснилось, не все понимают важность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работы. Неудовлетворительную оценку по итогам 2016 года получили отдельные районы. В результате один из руководителей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звена был уволен.

Утром следующего дня участники сбора, несмотря на разыгравшуюся метель, отправились на военный полигон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Анивского района. Здесь они осмотрели полевой лагерь, готовый к приему призываемых граждан, пребывающих в запасе, потренировались в стрельбе из пистолетов, автоматов, снайперских винтовок, пулеметов, гранатометов. Несмотря на то, что густая пелена снега подчас почти скрывала мишени, результаты оказались довольно высокими. Программа занятий включала также вождение грузовиков и боевой техники. В составе экипажа МТ-ЛБ – многоцелевого транспортера легкого бронированного –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поразил учебные цели с помощью установленного на боевой машине пулемета. Затем он сменил транспортер на танк Т-72Б3.

- Очень хорошие навыки в обращении с оружием и меткую стрельбу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люди, прошедшие службу еще в рядах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 отметил Андрей Степанов, полковник, заместитель командира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по работе с личным составом. По его словам, особенно важно, что учебно-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сборы помогают наладить тесный контакт между военными и гражданскими властями.

- Полученный в ходе мероприятия опыт, естественно, найдет применение в нашей работе на муниципальном уровне, - отметил Александр Кобелев,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Томарин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 Теперь нам будет проще организовывать совместно с военными агитацию молодежи для прохождения контрактной службы, а также проводить учеб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упорядочить всю мобилизационную работу.

- Наша деятельность, цель которой – уберечь жителей области от различных природных и техногенных катаклизмов, постоянно пересекается с вопросами мобилизацио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 сказала Анна Михеева,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делам гражданской обороны, защиты от чрезвычайных ситуаций и пожар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Разделять эти понятия нельзя. Поэтому для нас очень важна возможность на практике наладить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 военными, чтобы в случае необходимости оказать им помощь.

Завершились практические занятия учебным боем. Используя танки и артиллерию, подразделения 68-го армейского корпуса успешно отразили атаку условного противника. Корректировка огня велась с помощью беспилотного летательного аппарата. Находясь на командном пункте, сотрудники областных 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властей получили редкую возможность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наблюдать, как действует система управления огнем в современных условиях.

- Наша задача – при необходимости в установленные сроки выполнить мобилизацио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бы со своей стороны обеспечить действия военных, - подвел итог сбора Олег Кожемяко. – Я думаю, что благодаря проводимой работе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способна успешно с ней справитьс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готовность нашего региона по оценке командования Восточного военного округа находится на хорошем уровне. Усиливаем мы и патриотическую работу с подрастающим поколением. В марте в регионе состоится военно-спортивная игра «Зарница».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даст нашей молодежи возможность узнать, что тако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прикоснуться к армейской службе.

(Материалы пресс-центра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남북 이산가족이 만나야 하는 이유

최 은 범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고문)

귀향선물 바리바리 싸들고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행렬과 정겨운 덕담으로 훈훈함 넘치는 음력설이다. 저승에 가서도 북한에 두고온 부모님 못 알아뵈까 걱정인 우리같은 이산가족들은 심장이 녹고 애끓는 시즌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해에도 변함없이 대량살상 무기 개발과 협박을 일삼으며 불안을 조성했다. 지난해 1월과 9월엔 두 차례나 핵도발을 한 데 이어 24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로 아까운 외화를 공중에 뿌렸다. 이에 대해 UN 안보리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하고 있다.

벤달(Thomas S. Vandal) 주한 미8군 사령관도 지난해 말 한 강연에서 “김정은의 수차례에 걸친 무력도발을 지적하면서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북한 김정은의 어떠한 위협에도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대한민국을 방어하고 최종적으로는 한반도를 통일할 준비태세까지 갖춰야”고 말했다. 북한 김일성의 6.25 남침도발로 끔찍한 전쟁의 참화를 겪고 평생 이산의 아픔을 안고 살고 있고, 김씨정권 탓에 평화유지비로 거액의 세비를 집행해야 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미심장한 말이다. 전쟁광인 북한당국이 대한민국 국민을 돈벌이 대상으로 이용해 왔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심지어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가족상봉, 서신교환 열망까지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 등 외화벌이와 연계시켜 왔다.

한국정부는 9년 전인 2008년 북한 금강산에서 발생한 ‘북한군의 대한민국 민간관광객 피격사건’ 이후 금강산 관광사업을 중단하고 있다. 또 지난해 1월 북한이 4차 핵도발을 하자 개성공단 자금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고 판단하고 2월부터 ‘개성공단 운영 중단’이라는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이같은 조치들로 인해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손쉽게 벌어들인 돈줄이 막히는 등 타격을 입었다.

북한은 김정일 시대부터 이산가족 상봉 행사에서 한국의 가족들이 북한 혈육에게 건네준 달러를 전액 회수하고 대신 혈값의 공식환율에 따라 북한돈을 줬다고 한다. 김정은 역시 개성공단 근로자들이 한국기업으로부터 받은 달러 월급 전액을 강탈한 뒤 근로자에게는 소량의 식량이나 생필품 교환권만 줬다고 한다. 강탈한 근로자들의 달러는 김정은 일가의 호화사치를 위한 자금을 모아 노동당 산하 39호실이 모두 독식했다고 한다.

이런 부조리한 북한정권을 상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유는 ‘단 한 명의 이산가족이라도 죽기 전 고향땅을 가까이서 밟아보고 헤어진 가족과 재회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당국은 인내심을 갖고 대북 설득을 통해 남북한 고

위급회담을 성사시켰고 남북합의에 따라 2015년 10월 제20차 이산가족상봉 행사를 관철시켰다.

그러나 북한정권은 그 이후 더 이상 이산가족 재회사업에 호응하지 않았다. 2015년 12월11일부터 이틀간 개성공단에서 열린 ‘제1차 남북당국 회담’에서 북한은 한사코 이산가족 상봉문제를 금강산 관광사업 재개와 결부시켜 동시 추진을 주장했고 결국 회담은 결렬됐기 때문이다. 이후 남북당국 간 회담은 재개되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해 대한민국으로부터 달러를 더 받아낼 수 없다고 판단한 김정은은 지금까지 이산가족 재회와 당국회담을 막고있는 것이다.

2000년부터 시작된 남북 이산가족 상봉행사는 한국의 상봉 신청자만 해도 13만 여명에 이른다. 그러나 지금까지 상봉의 수혜를 누린 사람은 겨우 2천 명에 불과하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한국 내 상봉 신청자 중 과반수인 6만8천여 명은 유명을 달리했고, 생존한 6만2천여 명 중에는 70대 이상이 85%에 육박한다. 시간적으로도 그 절박함을 통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고령의 이산가족을 위해 김정은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파 재회를 막는 반인도적 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남북 이산가족들의 가족권은 1948년 UN 총회가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되어있다. "어느 누구도 가정, 주거 등에 대해 자의적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 그 규정이다. 이후에도 가족권은 국제인권법 속에 기본 인권항목으로서 자리매김했다. 즉 "자기 가족과 연락을 취하고 재결합할 수 있는 권리"를 국제규약으로 규정한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가족권은 1949년 '전시 민간인 보호에 관한 제네바 협약'과 1977년 '제네바협약 제1 추가의정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산가족이 상호연락을 회복하고 재회하려는 목적으로 행하는 조회에 대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용이하게 해야한다"는 규정 등이 그것이다. 유엔도 1989년 '실향민 처리지침'(Guiding Principles on Internal Displacement)을 통해 가족권을 명문화했다. "실향민은 행방불명된 친족의 생사와 소재를 알 권리를 가지며 ... 사망한 친족의 묘소를 방문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고 말이다.

정유년에는 이러한 국제법 규정에 따라 ‘김정은이 가로막고 있는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파 상봉, 재결합 사업이 인권회복 차원에서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UN 등 국제사회도 인권 차원에서 남북 이산가족들의 전면적 생사 확인과 성묘단 교환 방문 등이 성사되도록 지원해주길 바란다. 지금도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Урок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Урок 17

한국의 전래 동화가 재미있어요

(전호의 계속)

Здесь речь идет о сказуемом, которое и оформляется основными грамматическими форматами, указывающих на время, наклонение, цель высказывания, категорию вежливости, направленность (залог) действия, форму действия (утвердительную или отрицательную), которые и определяют точный смысл всего предложения.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форматы, указывающие на наклонение и цель высказывания,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называются завершающими окончаниями (종결어미).

По цели высказывания и наклонению в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ыделяют пять видов предложений.

1.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평서문)

основное назначение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сообщение об определен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действительности (иногда вымышленных), т.е. передача информации адресату речи.

2. 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의문문)

Основное значение вопрос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получение информации от собеседника. В них формулируется вопрос по поводу неизвестных или не вполне известных говорящему ситуаций.

Кроме своей основной функции вопроси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нередко употребляются в ином значении, в частности - в роли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ых повествов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утвердительных или отрицательных). Такие вопросы, не требующие ответа, а передающие эмоционально окрашенную информацию, называются риторическими.

3. Повелительные (побуди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명령문)

Назначение побуд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поведение относительно совершения определенного действия тому, к кому обращена речь. В них выражаются различные виды побуждения: приказ, требование, предупреждение, запрет, наказ, просьба, совет и т.д.

4. Пригласи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청유문)

Назначение пригласи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побуждение к совместному совершению действия.

5. Восклицательные предложения (감탄문)

Назначение восклицатель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 выражение эмоций: удивления, испуга, радости и т.п.

Тот или иной характер высказывания выражается при помощи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кончаний и интонацией.

Практическая грамматика

(1) -(으)르 바에는, -(으)르바에야 "чем (делать то-то)..."

Указывает на то, что совершение действия, выраженного главным предложением предпочтительнее (или лучше) совершения действия соответствующих окончаний и интонацией.

Примеры:

아무것도 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산책이라도 나가요.

→ Чем ничего не делать, лучше выйду на прогулку.

이렇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다.

→ Чем так делать, лучше не делать вообще.

정기 예금을 하고 중도에서 해약할 바에야 아예 보통예금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 Не лучше ли открыть обычный счет, чем открывать постоянный, а потом прерывать его?

(2) -(으)르 뻔하다 "кажется, что...", "по-видимому..."

Употребляется в ситуациях, указывающих на предположение чего-то естественного, привычного или регулярного.

Примеры:

그가 내일은 올 법한데.

→ Он завтра придет.

저녁에 비가 올 법해서 행사를 다음날로 연기하기로 했다.

→ Решив, что вечером будет дождь, мы решили отложить провед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до завтра.

벌써 다섯 번째 보는 시험이니 이번에는 합격할 법도 해요.

→ Он уже в пятый раз сдает этот экзамен, так что наверное в этот раз он его сдаст.

(3-으)르 성싶다 "кажется", "по-видимому"

Примеры:

날이 흐린 걸 보니 눈이 올 성싶다.

→ Кажется будет снег, если судить по пасмурной погоде.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닐 성싶다.

→ Что бы ни говорили о том, что в нашем мире деньги могут всё, все же, я думаю, что деньги и это далеко не всё.

웬지 낮이 익은 걸 보니 그를 어디선가 한 번 본 성싶다.

→ Кажется, я его где-то видел, потому что лицо его мне знакомо.

(4) -(으)르 셈이다; "думать", "планировать", "намереваться"

Примеры:

그렇게 놀면서 시험은 어떻게 볼 셈이니?

→ Как ты собираешься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ы не готовясь к ним?

이곳이 너무 좋아서 아예 여기서 살 셈입니다.

→ Здесь так хорошо, что я планирую остаться здесь навсегда.

(계속)

(한국 국립국제교육원 한국어교과서 자료 이용)
(사할린한국교육원 제공)

새고려신문사 기자 채용 공고

새고려신문사는 젊은 기자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러시아어로 취재, 한국어능력은 기초입니다. 컴퓨터는 기초, 러시아어 타자.

견습기간 3개월.

문의 전화: 43-67-85, 43-59-80.

본사편집부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иглашает желающих на работу на должность корреспондента (испытательный срок 3 месяца, знание корейского - нач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онтактный телефон—43-67-85, 43-59-80 (с 10.00 до 15.00).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본사 편집부)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여기에서 학생들은 사할린주 내 과학분야에 종사했던 연구가 및 과학자들의 연구와 성과에 대해 새로운 많은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고향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행사는 2월 7일 14시에 사할린 일반과학도서관 회의실(하바롭스카야 거리, 78번)에서 진행되며 프로그램에는 사할린주 젊은 학자들과의 만남, <로드니크>생태센터의 대체 에너지원 프로젝트 프레젠테이션, 대중과학 실험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научная библиотека отпразднует День российской науки

8 февраля — День российской науки. К этому дню в стране проводятся различ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научной направленност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ройдет тематическое мероприятие "Шаги в науку" под девизом "Научно — это не скучно!" с целью популяризации достижений российской и мировой науки среди учащихся и формирования у них интереса к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ому поиску, к повышению своего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го и культурного уровня. Ребята смогут узнать много нового не только о достижениях и исследованиях научных работников нашей области, но и много интересного о своей малой родине.

Мероприятие состоится 7 февраля в 14 часов в конференц-зале СахОУНБ (улица Хабаровская, 78).

В программе: встреча с молодыми учеными Сахалина, презентация проекта эколог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Родник" по альтернативным источникам энергии, научно-популярные опыты,

제 35 회 <러시아 스키>경주대회가 사할린에서 2 월 11 일 개최

사할린에서 <2017 러시아 스키 > 전 러시아 일반 크로스컨트리 대회가 2월 11일에 개최된다고 사할린주스포츠청소년정책부가 전했다.

올해 지역은 이 행사를 35번째 지원하고 있다. 스키노전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트로이츠크예에 부설된 스키장이다.

경기 참가자와 관람자들을 위해서는 난방 및 식사 텐트 준비, 좌판요리 조성, 스키장비를 무료로 대여한다. 이곳에 편성된 경찰대원들은 공공 질서와 보안, 교통편 출입 및 주차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또한 작년의 경험을 고려해 주차시설도 확대할 방침이다.

주최 측은 아나와 예술단들이 참가하는 문화프로그램도 준비할 계획이다.

일반부 경기에 모든 희망자들의 참가가 가능하다. 아동들은 200미터, 청소년, 남성, 여성, 주부들은 2 킬로미터, 5킬로미터와 10킬로미터에서 경주하게 된다.

작년 크로스컨트리 경주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었다.

참가 등록과 참가번호 부여는 2월 6일부터 10일까지 트로이츠크예촌 청소년스포츠학교(주소: 첸트랄나야, 39, 10시부터 17시까지)와 동게스포츠크학교(유즈노사할린스크, 고리키 7/1, 9시부터 16시까지)에서 이루어진다.

문의 전화: (4242) 73-45-74 와 28-25-02. 메일 troitsk_sportscool@mail.ru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필수로 여권과 건강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생명건강보험은 등록시 무료로 할 수 있다.

35-я «Лыжня России»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йдет 11 февраля

На Сахалине Всероссийская массовая гонка «Лыжня России-2017» состоится 11 февраля, информирует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спорта и молодежной политики.

В этом году регион поддержит мероприятие 35-й раз. Трассы, как и в прошлые годы, будут проложены на лыжной базе в селе Троицко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зрителей будут предусмотрены палатки обогрева и питания, организованы полевая кухня и бесплатный прокат лыжного инвентаря. Сотрудники полиции будут обеспечивать охрану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орядка и следить за въездом и выездом транспорта. Учитывая опыт прошлых лет, в этом году расширят место для парковки..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ят и культурную программу с участием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Анивы.

В массовом старте на лыжах могут участвовать все желающие. Дети побегут 200 м, юноши, мужчины, девушки и женщины — 2 км, 5 км и 10 км.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гонк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свыше 2 тыс. человек.

Записаться и получить стартовые номера участников можно с 6 по 10 февраля в ДЮСШ села Троицкого по адресу: ул. Центральная, 39 (с 10:00 до 17:00) и спортивной школе олимпийского резерва зимних видов спорта по адресу: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Горького, 7/1 (с 09:00 до 16:00). Справки по телефонам: (4242) 73-45-74 и 28-25-02. Заявку можно также отправить на электронную почту: troitsk_sportscool@mail.ru. При себе необходимо иметь паспорт и справку от врача с допуском. Страхование жизни и здоровья проводится при регистрации бесплатно.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Вниманию жителей Анив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11 февраля 2017 года в 16:00 в актовом зале Детского Дома Творчества состоится отчетно-выборное собрание АНИВСКОГО ОТДЕЛЕНИЯ региональ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 Будет работать лавка корейских продуктов.
Оргкомитет

사할린한국교육원 직원 채용 공고

사할린한국교육원은 현지채용 직원을 아래와 같이 선발하오니 희망자는 한국교육원으로 연락바랍니다.
= 아래 =

- 모집 직종 : 사무원
 - 통번역
 - 각종 행정업무
- 지원자격
 - 가. 2017년 1월 1일 기준 만50세 미만 (1967.1.1 이후 출생자)
 - 나. 러시아 국적자
 - 다. 한국어 통번역 가능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인증자 우대
 - 라. 컴퓨터활용능력 보유자 우대 :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등
 - 마. 사할린한인동포 사회에 기여자 우대
- 채용기간 : 2017.3.1 ~ 12.31 (10개월)
 - ※ 매년 재계약 가능
- 선발절차
 - 가. 서류전형
 - 제출서류 :
공통: 이력서(교육원 제공 양식), 여권사본
우대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인증서
컴퓨터능력활용 자격증(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 서류제출 기간 : 1.23 ~ 2.10
- 제출방법 : 한국교육원 방문 접수
 - 나. 면접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3배수 면접 ※ 2.13 면접 대상자 통보
 - 면접일 : 2.22 10:00 한국교육원
 - 최종발표 : 2.23
- 문의처 : 사할린 한국교육원
 - 주소 :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미라거리 83-A
 - 전화 : 505696

реклама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15-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